

GIST, 발전기금 확보 청신호... 연구 및 인력양성에 활용

- AI기반 융합연구 기금에 이어 H재단 기금 3억원 확보, 특훈교수제도 활성화



▲ GIST 행정동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H재단을 통해 GIST 특훈교수기금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11월 24일(금) 오후 H재단에서 임기철 총장, 김상돈 교학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차가영 발전기금팀장과 H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IST는 10월 AI기반 융합연구 기금 3억 원에 이어 이번 특훈교수 기금까지 연구 및 인재양성 관련 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특훈교수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GIST는 탁월한 교육 및 학술연구 실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을 대상으로 '특훈교수'를 선정하여 예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GIST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귀중한 자산을 기부해 주신 H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